2024 이배이
추가자료

실전 모의

교육청 모의고사
2024 - 3월

교과서 | 인문예술 | 사회문화 | 과학기술 | 개념통합 | 실전모의

모의고사 오버뷰

2024 교육청 모의고사 3월

 # 서론

- 본 자료는 각종 사설/교육청/평가원 모의고사를 '배경지식'의 관점에서 리뷰하는 자료로, 학생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양질의 모의고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입니다.
- '이배이' 교재 집필을 하며 체계화된 기출/EBS 자료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합니다. EBS 연계의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모의고사의 특성에 따라 2024학년도 비연계 출제 지문의 경우, 2023학년도 EBS에 유사한 지문이 있다면 해당 내용 첨부하였습니다.

이배이는 **"오르비 전자책/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배이 수능특강 (상)	https://docs.orbi.kr/docs/10916 https://smartstore.naver.com/ksat_ipsi/products/8167665940
이배이 수능특강 (하)	https://docs.orbi.kr/docs/10917 https://smartstore.naver.com/ksat_ipsi/products/8167672040
이배이 수능완성	7월 출시
이배이 에센셜	9월 출시

문항 번호	EBS 연계	지문 번호	영역	EBS 주제	비고
4~9	-	-	인문/예술	비연계	
10~13	수특p287	2024 모고#1-3	사회/문화	밀접연계	중요
14-17	-	-	과학/기술	간접연계	

**지문 번호는 이배이 교재에 표기된 번호입니다.*

2024학년도 교육청모의고사 3월

비연계	[4~9] 다윈의 식탁(장대익),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 (김동규 외)

(가) 모방이란 관찰을 통해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하는 것인 데,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모방의 개념은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히 이해된다. 동일한 구조의 먹이상자 2개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행동 차이를 거울 뉴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뉴런은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반면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 될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따라 하는 인간의 모방 메커니즘은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

(나) 도킨스는 인간이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주장 한다. 나아가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밈이라고 불렀다. 밈은 모방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 블랙모어는 이것을 기생-숙주 모델로 설명한다. 밈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 밈에게는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밈의 전달이 모방을 통해 일어난다고 할 때, 블랙모어는 모방을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과 구별한다.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는 점등을 들어 밈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밈 이론지지자들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신경과학관점에서 밈을 설명하려 시도한다. 밈 이론은 사상과 문화 등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연계 기출	
평가원	-
LEE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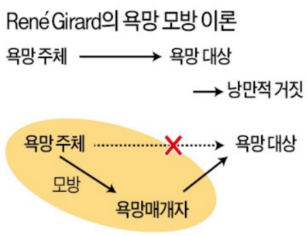
2024 인예17	르네 지라르의 욕망이론	☆☆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욕망은 생존과 직결된 자연스러운 본능인 욕구와 구별되며, 항상 타인이 개입된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는 인간의 욕망 추구는 타인에 대한 모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존경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좋아하는 것처럼 욕망이 인간과 대상의 직접적 작용이 아니라 모델이라는 매개자를 통한 중개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겼다.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지니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본 것이다. 그가 보기에 욕망은 본인보다 더 나은 위상을 소유하는 타인이 있기에 생기는 감정이고, 이러한 모방적 경쟁에서 나오는 욕망은 실체가 없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충족될 수 없다고 보았다.

르네 지라르의 욕망 모방 이론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에게는 있으나, 자신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망'이다.

1)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2024 과기27	**특정 행동의 원인**	☆

특정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의문은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행동의 근거가 되는 내적 원리를 기술하는 것으로, 생리학적 • 신경학적 요인 등 '어떻게'와 관련한 행동의 '발현 원인'에 관해 언급한다. 다른 한 유형은 행동의 진화에 관한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왜' 그러한 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행동의 '형성 원인'에 관해 언급한다. 이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적응 행동이 진화되었는가에 관한 기술이 포함된다.

특정 행동의 원인 분석

1. 행동 근거가 되는 내적 원리의 기술
2. 행동의 진화에 대해 기술

2024학년도 교육청모의고사 3월

EBS 밀접 중요	[10~13] 물권법 강의 (박동진)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물권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동산에 비해 값비싼 물건인 부동산은 등기를 하여 그 권리관계를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한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편성되며, 한 물건에 하나의 등기기록만 존재한다. 부동산 매매와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는 기입등기라고 하며, 완료된 등기에서 오류를 확인하여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려는 등기는 경정등기라고 한다. 우리 법제는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 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Comment

아래 첨부된 2024 수특 독서 지문과 연관된 내용이므로 엮어서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계 기출	
평가원	2021.11
LEET	-

채권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2021학년도 수능

2024 모고#1-3 수특 p287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물권 행위에 대한 두 관점

이 글은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물권 행위에 대한 두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러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 물권 변동이라고 하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한다.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물권 행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사주의와 일정한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형식주의가 있다. 프랑스는 의사주의를, 독일과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따르고 있다.

연계 기출	
평가원	2021.11
LEET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인 재산권에는 물권(物權)과 채권(債權) 등이 있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과 구분된다. 물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근거로 타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물건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 누군가의 지배가 성립하면 동일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 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물권의 배타성 또는 독점성이라고 한다. 또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상대적 권리인 채권은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제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 이와 달리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 물권 변동이라고 하며, 이러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한다. 물권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는 행위자 사이에 채권 •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 행위에 의한 것과 차이가 있다. 채권 행위는 발생한 채권의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게 되지만, 물권 행위는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 그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그 채권 행위에 의해서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그리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탁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갑과 을은 아직도 각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또한 을은 갑에게 또 다른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채무가 이행되고 나면 부동산의 소유권과 금전의 소유권이라는 두 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 후에는 갑과 을에서 더 이상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처럼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의사 표시 외에 일정한 공시(公示) 방법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각국의 민법 규정은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사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 표시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을 형식주의라고 한다. 후자의 관점을 취할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과 같은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통해,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를 통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의사주의는 대항 요건주의라고도 한다. 프랑스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건의 소유권은 채권의 효력을 통해 이전한다고 하고,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완성되어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든다고 정하고 있다. 즉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 표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 표시와 구별되지 않으며,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공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이 물건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할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물건의 등기나 인도가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그 물권 변동 사실을 모르는 제삼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랑스 민법에 서는 부동산에 한해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형식주의는 성립 요건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관점에서 물권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이며,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독일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권 행위는 그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와 언제나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 표시 외에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 절차를 거쳐야 물권이 변동된다. 이러한 성립 요건주의에서는 물권 행위가 공시 절차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항 요건주의에서와 같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립 요건주의는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거래의 안전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우리 민법 역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연계 가능 토픽

2024 사문29	**물권과 채권**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인 재산권에는 물권(物權)과 채권(債權) 등이 있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과 구분된다. 물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근거로 타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물건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 누군가의 지배가 성립하면 동일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물권의 배타성 또는 독점성이라고 한다. 또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상대적 권리인 채권은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제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 이와 달리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

특정한 물권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며,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

이에 반해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상대적 권리이다.

1) 점유와 소유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2024 수특 p. 287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2024 사문30	**물권 변동과 물권 행위**	☆☆☆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 물권 변동이라고 하며, 이러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한다. 물권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는 행위자 사이에 채권 •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 행위에 의한 것과 차이가 있다. 채권 행위는 발생한 채권의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게 되지만, 물권 행위는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 그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물권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물권 행위: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1)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2) 물권의 변동

물권의 발생: 원시 취득(타인의 권리 없이 독립적으로 취득), 승계 취득(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

물권의 소멸: 절대적 소멸(물건 자체의 소멸), 상대적 소멸(권리 주체의 소멸)

2024 수특 p. 287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2024 사문31	**의사주의**	☆☆

의사주의는 대항 요건주의라고도 한다. 프랑스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건의 소유권은 채권의 효력을 통해 이전한다고 하고,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완성되어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든다고 정하고 있다. 즉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 표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 표시와 구별되지 않으며,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공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이 물건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할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물건의 등기나 인도가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그 물권 변동 사실을 모르는 제삼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랑스 민법에 서는 부동산에 한해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주의 (프랑스, 대항 요건주의)
물건의 소유권은 채권의 효력을 통해 이전된다고 보는 것.

2024 수특 p. 287

2024 사문32	**형식주의**	☆☆

형식주의는 성립 요건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관점에서 물권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이며,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독일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권 행위는 그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와 언제나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 표시 외에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 절차를 거쳐야 물권이 변동된다. 이러한 성립 요건주의에서는 물권 행위가 공시 절차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항 요건주의에서와 같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립 요건주의는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거래의 안전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우리 민법 역시 이를 채택하고 있다.

형식주의 (독일, 우리나라, 성립 요건주의)
물권 변동은 당사자들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인도'라는 공시 절차를 거쳐야 물권이 변동된다는 것.

2024 수특 p. 287

2024학년도 교육청모의고사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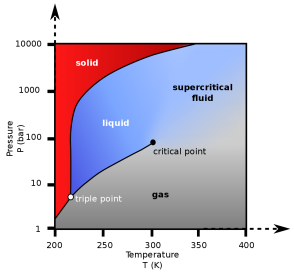
EBS 연계 간접	[14~17]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입자 제조

혼합물이 과포화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입자로 석출되는 것을 결정화라 한다. 제약 등의 분야에서는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다. 온도와 압력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일 때 물질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의 밀도를 변화시켜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한다. GA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용매는 용질을 녹이지 않고 용매와는 잘 섞이는 물질이다. GA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혼합물에 넣어 혼합물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 용질을 고체 입자로 석출한다. RES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한다. GAS 공정과 RESS 공정 등의 결정화 공정에서는 주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이산화탄소는 임계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 압력 조절을 통해 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고, 그 자체로 독성이 없어 안전성 측면에서도 적합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연계 기출	
평가원	2009.09
LEET	-

2024 과기26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이동상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다른 이름이 정해진다. 이동상이 액체인 것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이 기체인 것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라 한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GC) 장치는 이동상 기체와 시료 주입구, 분리관, 검출기, 데이터 처리 장치를 비롯한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체 상태의 시료가 헬륨이나 질소와 같은 이동상인 운반 기체에 섞여서 분리관을 통과한다.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운반 기체는 분석하려는 시료와 상호 작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분석물을 이동시키는 역할만을 한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이 기체인 크로마토그래피

초임계유체 크로마토그래피
초임계유체는 기체와 액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액체도, 기체도 아닌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래의 그림이 이산화탄소의 상평형도인데, 우측 상단의 Supercritical Fluid가 초임계유체 상태인 것이다.